

The Church of Christ, Vol. 46

그리스도의 교회

46 죽음, 그 이후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CHURCH OF CHRIST MISSION

그리스도의 교회 (Online)

제46권

The Church of Christ, Vol. 46

펴낸 날

2020년 12월 30일

펴낸 곳

(재)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주소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28길 57-3
(화곡동)

전화

02) 2607-0645

팩스

02) 2696-1560

인터넷

thechurch.kr / christ.or.kr

이메일

administrator@christ.or.kr

eISSN 2734-1577

Printed in Korea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재번역, 공동번역, 한글 킹제임스흠정역 등을 함께 사용하며 원문의 뜻을 살리되, 필요에 따라 반점과 온점 등의 부호를 삽입하면서 꺾쇠 안에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출판 사역을 기도와 후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제공: J. C. Choate Publications; World Evangelism; World Video Bible School

후 원: 강남그리스도의교회(서울), 한인그리스도의교회(미국 LA), 김명수, 김무근, 김충기, 이창완.

복음으로 부르심 / 3

청사진 확인 / 4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성경 도표 / 10

영원을 향한 여정

그리스도교의 역설 / 11

모으면 잃고 잃으면 찾음(1)

구약의 교훈 / 15

솔로몬이 알게 된 죽음의 의미

함께 찾는 답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 20

천국은 어떤 곳일까? / 30

위로가 필요할 때 / 40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

삶을 바꾸는 성경공부 / 48

긍정적인 삶의 첫 단계

섬기며 사는 삶 / 52

영적으로 온전한 태도(1/4)

하나님의 나라 / 57

폭발적으로 성장한 나라

새 노래: 내 본향 집 / 66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101-356564

예금주 : (재)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추가문의 : 02) 2607-0645

야고보서 4:13-17(새번역)

13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일 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14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15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16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언젠가 이 늙은 몸은 임시로 주어진 목적을 다하고 기능을 멈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의 영혼은 자유롭게 될 것이고,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전 12:7). 나의 영혼은 자유롭게 되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반겨주시는 품 안으로 돌아가서,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나의 영혼이 주어진 목적을 달성한 존재가 되기를, 창조될 때 부여받은 성격과 임무에 충실하게 살고 섬기며 사랑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사람들은 삶에 대해 자주 묻는다. 자기 자신에게 묻기도 하고, 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은 자신의 존재를 보며 곤혹감에 빠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일 뿐이다.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곤혹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70여 년의 세월 동안 매일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주어져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늘 궁지에 몰린 채 산다. 영혼에 부여되어 잠재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산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지침서’인 성경을 잠시 차분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임을 안다(계 4:11).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기록해야 하고(벧전 1:16) 사랑 안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엡 1:4).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며(엡 1:6, 12, 14 새번역)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엡 2:10) 선한 존재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으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될 만큼 좋게 지으셨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답게 살아야 한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를 양자 삼기로 원하고 계획하신 일에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롬 8:15, 23; 엡 1:5).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사랑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은 모든 면에서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 알 수 있다. 현재와 다른 것을 상상한다고 해도 짐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상이 가능할 뿐이다. 사람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사람보다 위에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본향인 천국 역시 우리의 상상을 크게 뛰어넘는 모습일 것이다. 천국이 지닌 아름다움은, 완벽한 아름다움과 성품을 지닌 설계자이신 하나님만 부여하실 수 있는 아름다움일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일 것이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지닌 자녀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일 것이다.

천국은 사람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천국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그대로 옮겨가서 살도록 만들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국은 신령한 사람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거하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천국은 부활한 의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이다. 천국에는 고통이 없을 것이다. 우리를 해칠 사람도, 우리를 괴롭힐 질병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계 21:4). 육체적인 것이 없고 육체를 치료할 일도 없을 것이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음식도 필요 없을 것이다. 물을 마실 필요가 없으니 액체도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분의 뜻을 마음껏 누리는 향연에 참여할 것이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금껏 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드실 수 있다. 천국은 너무도 멋져서, 그 안에 살며 일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싫증을 느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천국에는 흉한 것이 없을 것이다. 흉한 것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에 흉한 것이 자리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쓰레기처리장도 없을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 내는 쓰레기도, 장례식장도, 묘지도, 양로원도, 의약품도, 의사도,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시설이나 공장도 없을 것이다. 천국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집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 없

을 것이고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옷도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똑같이 ‘의로움’이라는 옷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계 19:8).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을 것이다. 천국을 묘사한 성경 구절을 보면, 천국의 아름다운 거리가 정금, 즉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말씀한다(계 21:18, 21). 천국에는 명품 핸드백이나 값비싼 운동화가 없을 것이다. 신분 차이에서 생겨나는 교만과 경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할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간절히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 즉 평화이다. 평화로부터 기쁨과 행복이 비롯되기 때문이다. 평화는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평화로운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즐거울 것이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은 모두 다 있을 것이다. 천국에는 어떠한 위협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미움이 없을 것이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잘못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배운 사랑은 주위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을 뛰어넘은 사랑, 불완전한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을 뛰어넘은 사랑일 것이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닌 사랑이 [과거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고 선한 것만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화만 남는다.

천국에는 태양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계 21:25; 22:5). 천국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끝없이 계속되는 하루 속에서 선하고 의로운 것을 모두 즐기며 살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을 섬길 것이므로, 모두가 모두에 의해 섬김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는 설령 실수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어야 하고, 복수심과 악의를 떨쳐버리는 태도를 배운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복수심과 악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로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

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등을 말씀한다(잠 6:17-19).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많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은 각 사람의 삶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큰 형님과 같은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성품을 갖추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언급하면서(참조: 롬 8장 전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신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자기 조절) 등의 성품을 갖추게 될 것이고(갈 5:22, 23)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배운 사람이 될 것이다(24절). 이어지는 2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듯, 우리는 우쭐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도 안 되며, 상대방이 화가 나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들 만큼 악의를 품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시샘해서도 안 된다.

앞에 열거한 성품 하나하나는 모두 우리가 갖출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품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는 노력이다.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악한 품성을 지닌 영혼은 천국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 도달한 모든 영혼은 사탄의 유혹을 전부 극복하고 어떠한 유혹에도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배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항상 절제하는 태도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모든 정욕을 통제하는 태도를 배웠다면 그것은 천국에서도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증거로 제시될 것이다. 천국에는 썩어질 육체도, 불평등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절제를 내면화한 모습으로 지낼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가장 잘 아신다는 믿음이며,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그것이 최선임을 알기에 우리는 즉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사는 동안 지니고 행해야 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가 지닌 믿음을 입증할 것이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믿음이 드러날 것이다.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만 천국에 마련된 처소에서 살 수 있다.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지닌 겸손한 사람(민 12:3)이어야 한다. 비록 과거에는 다윗처럼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만(삼하 11장), 다윗이 회개하던 모습처럼 약점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이어야 한다(삼상 13:14; 행 13:22).

누군가 말했듯 “천국은 준비된 영혼을 위하여 준비된 곳이다”. 천국이라는 목표에 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천국에 합당하게 사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곳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 천국은 의로운 영이 가고자 갈망하는 곳이다. 영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전 12:7).

천국에 합당한 훈련을 하며 살기는 쉽지 않다. 나날이, 시간마다 거듭해서 우리는 텔레비전, 인터넷, 전광판, 다양한 광고, 세련된 사진 등을 통하여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공격을 받는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물건과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려 애쓰지만, 그러한 물건과 생각은 이성과 육체의 욕망과 걱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일 뿐이다(롬 8:1-15). 우리 주변을 에워싼 유혹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유혹]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유혹]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유혹]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실제로 많은 성도가 온갖 유혹을 이겨냈다는 사실은 우리는 로마서 12장 21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요한1서 2장 13과 14절, 4장 4절, 5장 4절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우리도 그들처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든 싸움임은 분명하다. 이 땅에서의 삶은 쉽지 않고,

사탄은 그가 있기로 되어 있는 곳에 당신도 영원히 있게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 자신도,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변명을 일삼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 저런 죄 정도는 눈감아 주시겠지 하는 생각, 이 문제는 다른 죄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 등으로 변명을 삼으면 안 된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일이다(삼하 12:13; 시 51:4; 눅 15:18). 참으로 심각한 죄이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에 전적으로 따를 때 가능하다. 헌신할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모든 의인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천국에 합당할 만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하며 살되,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가능하게 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말도록 하자.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공로를 인정받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얻을 수는 없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요 14:6).

글쓴이: 파수리

Parsley, Malcolm. “Looking for the Life after Death.”



영원한 죽음

마태복음 7:13, 14

영원을 향한 여정

영원한 생명

나라의 길

저고 이나 기

렘 6:15-17

사람의 길
= 소망 없는 끝

요 14:1-6

하나님의 길
= 끝없는 소망

죄로 인하여
죽어 있음

세상에 속한
옛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엢 2:1-7

고후 4:3, 4

고후 5:17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

정죄되어
지옥으로 향함

정죄함이
없음

사 59:1, 2

막 9:47, 48

롬 8:1, 2

소망이
전혀 없음

형벌로 이어지는
죽음을 맞음

복된
죽음을 맞음

엢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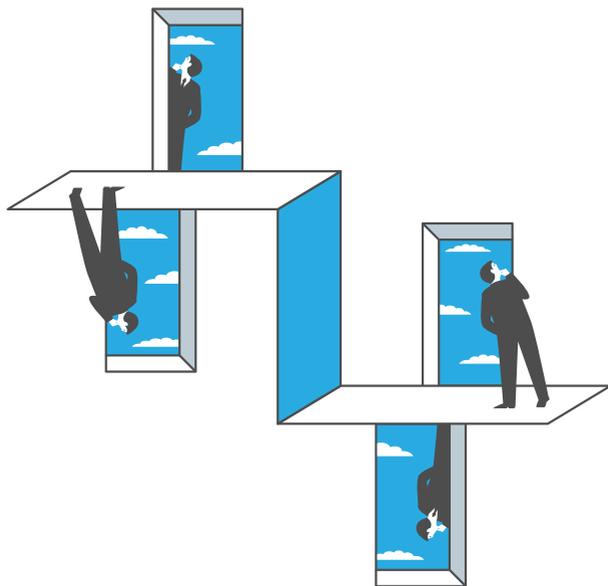
살후 1:7-9

예수 = 하나님인 그 길

히 6:19, 20

계 14:13

모으면 잃고 잃으면 찾음(1)



‘역설적’이라는 말은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표준국어대사전). 성경은 여러 가지 역설로 가득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기적인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모으는 쪽을 택하면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반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잃는 쪽을 택하면 귀한 것을 찾게 된다는 가르침을 성경에서 확인할 것이다.

첫 번째 질문: 어렸을 때 돈을 모으고 싶으면 어디에 모았는가? 돼지저금통, 유리병, 상자 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다. 당신은 돈을 그 안에 넣어두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질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물론 그것을 찾을 것이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온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를 떠올려 보라. 비유 속 여인은 열 개의 온전 가운데 하나

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것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5장 8절과 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문장부호 첨가. 이하 같음).

세 번째 질문: 일반적인 경우, 무엇인가를 잃어버려도(그리고 그것을 찾지 않아도) 다시 저절로 나의 것이 될까? 물론 그렇지 않다. 몇 주 전에 필자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필자가 방문한 교회의 예배실에 놓고 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필자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핸드폰 서비스가 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있었기 때문에 필자는 핸드폰을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필자가 머물고 있는 지역의 집전화로 연락이 왔다. 필자가 핸드폰을 놓고 온 교회의 한 지체가 전화를 했고, 필자가 핸드폰을 그 교회 예배당에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때까지 필자는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지 않고 있었다. 잃어버린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께서 들려주신 역설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주의깊게 보기 바란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뒤집어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 머리 위에 쏟아놓으신 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너희 목표는 너희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 생명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희는 생명을 찾을 것이다.”

이번 회와 다음 회 연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역설에 비추어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결혼 및 이혼에 관한 문제이다.

결혼과 성에 관한 거짓된 가르침들에 의지하면 모으다 잃게 됨

가. 결혼에 관한 세상의 관점은, 결혼이라는 것이 200만 년 가량의 오랜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관습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 결혼에 관한 세상의 관점에서는 결혼을 값싼 물건과 같이 여긴다. 허름한 상자를 다루듯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며 되는대로 다루어도 된다는 것이다(하나님께서 결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관해서는 말라기 2:13-16을 볼 것).

다. 결혼과 관련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교회 안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음행에 해당하는 결합을 교회 안에서 유지하려 한다.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빠져나갈 구멍’으로 만들어낸 핑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라고 했으니 ‘버림 받은 신앙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 (2) 결혼 후 음행하여 죄를 범하고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따라 이혼을 당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혼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 (3) 마태복음 19:9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 (4) 모든 사람은 침례를 받을 당시에 처해 있던 결혼 상태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닌 상태로) 계속 유지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성구: 고린도전서 7:17-24).
- (5)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결혼 문제에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지 않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6)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들은 말로 회개했으면 현재의 잘못된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된다고 잘못 가르친다.

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다. 그들이 전하는 내용에는 심오한 목적이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결혼과 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 잃으며 찾게 됨

세상 지혜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결혼과 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잃어버림을 통해 참된 가치를 찾게 된다. (1) 하나님이 뜻하신 결혼은, 수천 년 전에 사람을 지으실 때 직접 제정하신 언약이다(마태복음 19:4-6). (2) 결혼은 평생 계속되는 헌신이어야 하고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3) 결혼은 이혼 및 재혼 문제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마태복음 19:1-12).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즉 배우자가 간음죄를 지은 경우뿐이라고 말씀하셨다. (4)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결혼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비밀”, 즉 ‘신비’를 밝히셨다(에베소서 5:22-33).

남편 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남편 된 사람은 아내에게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아내 된 사람 역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아내 된 사람이 잃음을 통해 찾는 일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존중하며 따름을 통해 이루어진다.

글쓴이: 셰인 피셔

Fisher, Shane. “Paradoxes of Christianity: Losing Through Saving / Finding Through Losing,” Part 1. *The Voice of Truth International*. Vol. 102, pp. 52-54.

솔로몬이 알게 된 죽음의 의미

구약성경의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놓고 다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렸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결론이 변함없이 타당하다(참조: 전도서 1:1, 12). 어렵지만 강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전도서>의 기본 주제는, 이 땅에서 세우는 목표를 삶의 최종 목표로 정하고 살면 실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세상에서 얻는 지혜나 물질적 풍요, 권력이나 쾌락 등을 통해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러한 모든 시도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과도 같은 헛된 일일 뿐이다. 그러므로 분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전도서 12:12, 13).

전도서 제9장에서 지혜로운 전도자는 죽음에 관해 간략하게 논의한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담겨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연구해야 한다.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전도서 9:5, 6. 문장 부호 첨가. 이하 같음).

첫째, <전도서> 기록자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인식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목격할 세대를 제외하고(고린도전서 15:51) 죽음은 모든 사람의 삶에 잡혀 있는 일정이다(히브리서 9:27).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언젠가 죽게 되리라는 사

실을 잘 안다! 의학 분야의 일부 전문가들이 미래에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불사(不死)가 가능할 것이라는 오만한 약속을 내놓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도 죽음은 모든 사람이 예외없이 맞이하는 현실이다. 죽음의 공포가 없다면(히브리서 2:15) 인류는 지금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기가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솔로몬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라고 했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지만 유물론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죽은 사람에게 의식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전도서 9장 5절 말씀을 근거로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의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성경의 다른 곳에 적힌 가르침과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성경의 다른 곳들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이다(참조: 이사야 14:9; 누가복음 16:19이하). 전도서 9장 5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선언은, 사람이 죽으면 “**해 아래에서**”(전도서 9:6하반), 즉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다. 죽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종교적인 사람들이 비참하게 느낄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1.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죽은 자들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죽은 사람을 숭배하고 그에게 제사지내는 것이 무익함을 알려준다. 큰 종교심을 갖고 조상에게 음식이나 술 등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우상숭배라는 측면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세상을 떠난 조상들은 자신들을 높이는 예식이 이 땅에서 거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2. 가톨릭 교리에서는 이른바 성인(聖人)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는데, 그것 역시 전도서 9장 5절 말씀에 비추어보면 죄가 되는 행동임이 드러난다.
3. 이른바 ‘심령술’을 한다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과 교통하려 하는 것(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전도서 9장 5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요 주

장이다.

-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곳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위로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에 바탕을 둔 견해일 뿐 성경에 바탕을 둔 믿음이 아니다.

셋째,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관련하여 죽은 자들은 “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세상을 떠난 이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의 보상은 그들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보상은 그들에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살아 있는 사람이 받을 상을 죽은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면, 몇몇 종교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에 담긴 헛된 희망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 몰몬교(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죽은 사람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다는 이른바 ‘대리 침례’를 가르친다. 전도서 9장 5절 말씀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사실일 수 없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못, 그 어느 것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는다(참고: 에스겔 18:20).
- 가톨릭 신학에서는, 미사와 같이 땅에서 행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줌으로써 연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에 비추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영원히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

넷째, 사람이 하는 일이 대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을 솔로몬은 분명히 말한다. 매우 뛰어난 소수의 사람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역사에 강한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하다. 큰 도시 주변의 오래된 공동묘지를 걷다 보면 고인의 이름이 적힌 수많은 비석과 마주치지만, 세상을 떠나신 그분들에 대해 세상은 이제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 영어 문화권의 비석을 보면 “떠났으나 잊혀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의 문구를 새기는 경우가 많은데, 유감스럽게도 그 문구는 사실이 아니

다. 요점을 정리하면, 우리들 각자는 바로 지금 선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각 사람은 재능과 힘과 돈과 인품 등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동안 선을 행하여야 한다. 이 땅에서 주어진 기회들이 끝날 때가 오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은 죽은 사람들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기록하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라고 했다. 솔로몬이 남긴 이 말에는 분명한 의미가 몇 가지 담겨 있다.

1. ‘윤회’라는 신비주의적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죽은 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영원히 없다는 성경 말씀은 윤회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을 알려준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동양 종교가 유입되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지닌 사람들 중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다음 생’에 모종의 윤회를 통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매혹을 느끼며 빠져들고 있다. 윤회라는 개념은 전도서 9장 6절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다. 윤회가 없다는 사실은 여러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참조: 히브리서 9:27).
2. 서양 사회에서 윤회설보다 더 인기 있는 이론은 전천년설(前千年說. =천년왕국 이전 재림설)인데, 전천년설 역시 전도서 9장 6절 말씀에 비추어보면 타당하지 않다.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미래의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죽은 자들 중의 인들만 부활시킨 다음, 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하여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전혀 없다. 이미 숨을 거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하여 받을 몫이 영원히 없다.
3.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여러 교단에서 가르치지만, 전도서 9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주어진 선언은 그러한 이론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확인해 준다.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점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점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참조: 마태복음 6:19-20). 천국은 이 땅 위에 있지 않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천국’은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임. 반면, 마태복음 13:31 등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을 번역한 것으로, 이 땅에 임한 ‘하늘(의) 나라’를 의미함.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 정서에 맞추어 표현한 것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즉 교회를 의미함.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 57쪽 참조.

전도서 9:5-6은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그릇된 교리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글쓴이: 웨인 잭슨

Jackson, Wayne. "Solomon's Reflections on Death."

ChristianCourier.com. Access date: December 10, 2020. <https://www.christiancourier.com/articles/985-solomons-reflections-on-death>

성경 원어산책

스울 שׂוּל (히브리어: 세울)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은 자의 거처’.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 역>에서는 ‘하데스(ᾍδης)’라고 번역했고, NIV 등에서는 ‘무덤’으로 번역하기도 함. <개역개정판> 구약에서는 ‘스울’로 음역하되, 신약의 하데스에 대해서는 ‘음부(陰府)’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함. 스울을 ‘지옥’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히브리어 성경에 담긴 원래 의미에 맞지 않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한 야곱은 자기도 스울로 가겠다고 했음 (창 37:35).
- 고라, 다단, 아비람 등 반역을 일으킨 죄인들도 스울로 내려갔음 (민 16:30).
- 욥은 자기가 죽어 갈 곳이 스울이라고 했음(욥 17:13-16).
- 다윗의 시를 보면 스울은 죽음 자체, 무덤 등을 의미할 수 있음(시 18:4, 5; 30:3).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In Search of the Lord's Way〉 2012년 4월 1일 방송 내용

성경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 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묻는 모든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특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값진 일은 없습니다. [방송 안내 번역 생략.]



죽음에 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라면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심판, 천국, 지옥이라는 말들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뒤에도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나 TV 등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죽음 뒤에 놓여 있는 것에 관해 누군가 짐작한 내용을 들려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숨을 거둘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지에 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을 연구하며 답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여러분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듯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두 친구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과 같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젊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이 현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서 두 개의 문 가운데 하나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는 가장 멋진 경험으로 향하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로 향하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문장 부호 첨가. 이하 동일).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생명을 지닐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저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섬기고 옳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 성경을 검색하면 ‘죽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death’가 구약성경에서 150회 이상, 신약에서 120회 이상 나옵니다. [*편집자 주: ‘죽다’라는 동사를 ‘죽음을 맞이하다’와 같이 명사를 사용하여 번역할 수 있으므로 번역본에 따라 검색 결과는 다를 수 있음.] 죽음에는 ‘분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맞을 때 몸과 영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영적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숨을 거두었을 때 슬퍼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죽음이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죽었다고 해서 존재를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윗과 밋세바 사이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기가 죽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숨을 거둔 우리에게 천사들이 찾아올 것이고, 천사들은 우리의 영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편집자 주: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방금 인용한 말씀에서 ‘몸’이 죽었다고 했지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몸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이 죽어도 영은 존재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서는,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순간은, 우리 각자의 영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들의 아버지이심을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물질이 아닙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듯,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옆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누가복음 23장 43절). 이 말씀을 통해 주 예수께서 분명하게 밝히신 내용은, (1) 육체의 죽음 후에도 우리가 살아 있을 것이고 (2) 삶이 끝나도 의식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낙원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 있고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수수께끼처럼 느껴집니다. 알지 못하는 것, 특히 심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이 삶이 끝나고 난 뒤 오는 삶은 과연 평화로운 것일까?’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최악의 부류에 속하는 소수만 잃어버린 바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삶이 끝나고 난 뒤에 관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에 관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디에서 영원한 세월을 살게 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죄를 지었기에 받아야 하는 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모든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 [=죽은 자의 거처]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때 부자가 외치며 한 말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의 외침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부자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하나의 비유일 뿐이라고 여기면서 그 이야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사소한 일을 말씀하시지 않았습시다. 예수께서 ‘비유’와 같은 수사법을 사용하신 경우, 그것은 어떤 요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 요점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비유라면 그것은 제가 아는 그 어떤 비유와 다른 비유임이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특별한 이야기에는 ‘나사로’라는 구체적인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실제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실명을 사용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비유라기보다는 예화라고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어떤 성격의 이야기이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죽은 뒤에 두 가지 다른 방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한쪽은 편안함으로 가득하고 다른 한쪽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나사로와 부자 두 사람 모두 자기가 죽은 후에 있게 된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화를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에 이 땅에서 살던 때의 삶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죽음을 맞은 뒤에 몸이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죽음 뒤에 우리의 영도 의식이 없는 무감각 상태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1세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숨을 거둔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에서 주 예수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 죽음은 몸에 일어날 뿐입니다. 죽음은 영을 무의식 상태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사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예화는 우리의 눈을 밝혀 주어, 우리의 영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

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가는 그곳은 편안함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음부(陰府)’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장소이고, 죽은 사람의 영이 몸과 분리되어 가는 곳입니다. 하데스가 지닌 문자 그대로의 뜻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음부(陰府)와 지옥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음부는 일시적인 장소로서 몸이 없는 영들이 심판 날까지 거하는 곳이지만, 지옥은 영원하며, 부활한 몸이 가게 되는 곳으로,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부활이 있기 전에는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음부는 죽은 사람의 영만 거하는 곳입니다. 부활 때 우리의 영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새롭고 썩지 않는 몸과 결합할 것입니다. 죽음은 몸과 영의 분리입니다. 부활 때 우리의 영은 변화한 몸, 썩지 않는 몸과 다시 결합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몇 주 동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그리스도의 교회》 제48권 수록 예정]

‘음부(陰府. =하데스)’라는 말이 사후에 고통받는 곳을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단어를 죽은 자의 거처 전체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음부에는 고통받는 곳과 평안함을 누리는 곳이 모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 16편 10절에 기록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는데,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설명하기를, 예수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는 일이 없었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의 영혼, 즉 내면의 영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낙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듯,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한쪽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혼이 낙원으로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숨을 거두신 예수께서는 낙원으로 가실 수 있었고, 그 낙원이 바로 평안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낙원’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 세 경우 모두 ‘낙원’은 하늘에 속한 영역을 가리킵니다. 낙원은 의로운 사람들이 죽은 뒤에 가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의 ‘낙원’은 ‘셋째 하늘’과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곳은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숨을 거두신 예수께서 가신 낙원이 바로 의로운 영들이 거하는 그 세계이고, 바울 역시 적어도 잠깐 동안, 바울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묘사한 상태에서 그곳에 가 보았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낙원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낙원으로 가셨다고 했으니, 음부에는 고통받는 곳이 있지만 의로운 영혼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9절에 기록한 내용 또한, 숨을 거둔 뒤부터 부활할 때까지 영의 형태로 존재하며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숨을 거두면 주님께로 가서 함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의로운 사람들이 숨을 거두면 주님께로 가서 함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나에게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은 이익입니다]라고 한 다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였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편지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그가 숨을 거두면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해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저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서 얻는 확신을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主)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조차도 우리를 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숨을 거두는 바로 그 날, 그 사람은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함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천사들은 고통받는 곳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러한 준비를 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갖고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삶이 끝난 후에 이어질 상태를 확신을 갖고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추궁하고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추궁하실 방도만 찾고 계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옳은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선물은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야만 전달되는 선물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으실 선물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 뒤에 오는 삶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시사,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 갈 때가 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족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묘지를 사 놓고 관을 고르고 장례식 절차를 마련해 놓는 등 죽음이 오기 오래 전에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아주 잘 준비하지만 이 땅을 떠난 뒤에 일을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새롭고 다른 방향의 삶을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시록 3장 20절).

자동차를 잃고 집이나 건강을 잃고 생명까지 잃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잃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시고, 물속에서,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십시오. 사도

행전 22장 16절을 보면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지은 죄들이 씻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교회에 더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Sanders, Phil. "What Happens after Death."
In Search of the Lord's Way TV program. April 1, 2012.

천국은 어떤 곳일까?

〈In Search of the Lord's Way〉 2012년 4월 29일 방송 내용

하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참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약속이나 그릇된 희망 등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하늘의 천국에 마련된 것을 상속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은 참으로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끝내고 나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더 달콤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송이고자 합니다. [이하 방송 안내 번역 생략.]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상속]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개역개정판. 문장 부호 첨가. 이하 동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 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서의 유업을 잇

게 되는 것인데, 천국에서 받는 것은 썩지도, 더러워지지도, 닳아 없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물려받을 유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주 예수께서 다시 와 우리를 본향으로 데리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려받을 유업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하고, 복되고, 정결하며,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집으로 우리를 기꺼이 맞아들이실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방법은 최고로 화려하고 멋진 방식일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참으로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관한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음과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우리를 본향에 데려가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본향으로 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향을 향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은 영광스럽고 경이로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절부

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께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있을 곳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 처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아 온 그 어떤 곳보다 더 크고 웅장할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천국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우며 장엄할 것인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우리의 본향이 얼마나 멋진 곳일지 우리는 그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활동하던 당시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일로 제자들이 흥분하자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천국은 굉장한 곳이지만 천국의 기쁨은 ‘시설이 좋아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으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천국은 속량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이 소중한 이유는 그곳에 고귀한 분이 계시고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의로운 사람들, 즉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모두가 있게 될 곳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뵈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복을 주신 나의 아버지를 천국에서 뵙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주를 다스리시고 내 기도를 매일 들으시는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에 가서, 나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뵙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속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위해 귀한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제 몸이 성령께서 계신 성전의 역할을 하고 난 뒤, 천국에서 성령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수천수만의 천사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룹들과 스랍들도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저는 제가 성경에서 연구한 인물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고 싶

성경 원어산책

그룹 **קְרָבִים** (히브리어 단수: 케루브 | 히브리어 복수: 케루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창 3:24). 모세에게 증거궤(=언약궤)를 만들게 하실 때 하나님은 증거궤 위 속죄소(=속죄관. 시온좌) 양쪽 끝에 그룹 둘을 만들어 마주보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셨다(출 25:10-22). 히스기야 왕은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왕하 19:15). 그룹의 모습 및 특성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잘 묘사되어 있다.

스랍 **שָׂרָפִים** (히브리어 단수: 사라프 | 히브리어 복수: 세라핌)

이사야서 6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룹에게는 네 개의 날개가 있지만, 스랍은 여섯 개의 날개를 지닌 것으로 묘사되는데,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스테반, 바울, 디모데, 에스더, 룻,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도르가,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인물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저는 내가 사랑하던 그리스도인들, 가족,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난 순수한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천국은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죄를 범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누가 있든지,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생명나무의 잎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 우리 모두에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쓰라림이 있었든, 이 땅을 떠난 뒤에 이어질 삶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을 모두 없애주실 것입니다.

성경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번역).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낙원을 주십니다. 그곳은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곳이고, 슬픔이 모두 지워지는 곳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결혼한 뒤에 아내와 저는 이사를 다니면서 일곱 군데 집에서 살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집마다 나름대로 특별하고, 많은 사랑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우리 집’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같은 집에 대해 말할 때도 있지만 서로 다른 집을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물려받게 될 집은 하나님의 집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하기를, 천국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지은 집은 화재로 소실되기도 하고 재해가 닥쳐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은 무너뜨릴 수 없는 집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집을 계속 청소하고 수리해야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은 흠이 생기는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지저분해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점차 희미해지고 시들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천국은 안전한 피난처이자 성소일 것입니다. 계시록 22절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라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젯거리로 가득하지만, 천국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범죄, 전쟁, 질병, 죽음, 부도덕, 거짓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재 삶이지만, 천국은 다를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기적이거나 잔인하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비겁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러한 악인들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범행과 죄와 유혹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는 병원과 장례식장이 필요 없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태풍이나 지진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천국에서 우리는 예배할 것이고, 노래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수천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일 것입니다. 천국은 또한 섬기는 곳일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섬기는 일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맡았던 일과 비슷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것이지만, 천국은 편안한 쉼이 있는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복일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

안 헤쳐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든, 천국은 그 모든 일을 잘 해내고 갈 만한 곳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새번역, 이하 동일). 이 땅에서 겪는 마음 아픈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마음 아픈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외국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오래된 찬송에 다음과 같은 노랫말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냐 /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 열린 천국 문 열고 천사들 나를 부르네 / 이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처소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도시는 이 지구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랐고 우리가 소망하는 도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씀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에 관해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불로 정화되고 나서 새롭게 탄생할 지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원된 지구에서 의인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날에 하늘은 불타**

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원소들”(개역개정: 물질)은 이 세상, 즉 땅과 공기와 불과 물 등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게 된 바와 같이, 완전히 파괴 될 것입니다.

성경 요한1서 2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하늘”과 관련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비추어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시는 일은 그가 승천하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곳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것을 천국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구에는 해와 달이 필요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저는 한 시간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집으로 삼아 살게 될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어질 천국에 관한 소망과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천국에 거할 곳을 준비하신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와 함께 거할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인이자 구원자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운동경기 중계를 하나 놓친다거나 보고 싶던 영화를 못 보게 된다면 제가 놓치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나 놓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삶은 그래도 계속될 것

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놓친다면, 저는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천국과 관련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천국은 준비된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고, 성경에 묘사된 천국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주어진 전제조건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늘 염두에 둔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함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모든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천국에 합당한 준비를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주 예수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복음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회개하시고 마음과 삶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십시오. 매일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침례를 받으십시오.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죄가 씻어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유지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글쓴이: 필 샌더스

Sanders, Phil. “Heaven.”

In Search of the Lord's Way TV program. April 29, 2012.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28:2)

사랑하는 대상을 잃고 나서 완전히 회복되는 사람은 없다. 크리스마스 때 이웃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여성분이 필자와 필자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2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어요. 난 크리스마스 명절이 싫어요.” 남편에 대한 기억, 그리고 남편을 잃은 사실과 관련된 아픔이 20년이 지난 뒤에도 그 여성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필자의 어머니는 8년 전에 돌아가셨다. 꽤 여러 해가 흘렀건만 필자는 아직도 어머니가 그립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슬픔을 극복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꽤 오랜 기간이 흐른 후에 예기치 못했던 슬픔이 밀려오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보낸 기억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애도’라는 여정을 잘 마치고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일상으로 돌아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되, 떠나보낸 대상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다른 한편에 간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 가운데 한 사람이 숨을 거둘 때마다 실제로는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다!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소중한 대상을 떠나보냈다면 당신은 내면에 생겨나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애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단계들을 밟아야 한다. 애도에 필요한 단계를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떠나보내기와 떠나가기》 과정 두 번째 묶음 연재 안내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두 가지 방식으로 죽음과 마주친다. 사랑 하는 대상이 죽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는다. 제1차 연재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이제 제2차 연재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애도 과정에서 위로 받고 위로하는 방법, 임박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 등을 다룬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대상을 잃고 애도하는 문제에 관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을 받아들일 것^{마주}

첫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

유혹과 마주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함

예수께서 광야에서 유혹과 싸우실 때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마가복음 1:13).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과 마주칠 때 돕겠다고 특별히 약속하셨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유혹]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유혹]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유혹]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13). 그러므로, 당신이 소중한 대상을 잃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버리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고 있다면, 당신이 약할 때 돕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라.

슬픔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의지함

고린도후서 1장 3절 및 4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 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씀을 읽는다. 예수께서는 가장 큰 시련을 겪으시는 가운데 가능하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기도 속 탄원 내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예수가 십자가를 피하게 된다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아들을 위로하셨다(누가복음 22:43). 그와 마찬가지로 그

리스도인은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좌절 앞에서 소망을 품음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갓 태어난 자식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 아이를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이야기했다(사무엘하 12:23).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을 따를 수 있다(데살로니가전서 4:13-18). <계시록>에서는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한 소망의 메시지를 제공한다. 사도 요한은 수많은 사람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환상을 보았다(계시록 7:9-12). 그 모습과 관련하여 요한이 들은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찌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계시록 7:14-17 새번역 | 참조: 21:3, 4).

[사도 요한이 들은 내용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어느 때든 하나님이 섭리로 보살펴주실 것을 확신함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지?”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헬라이어 직역). 이 멋진 약속을 믿으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삶이

아무리 이상하고 불공평하게 보이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아차릴 것

슬픔이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가운데 하나는 ‘지속적 임재’, 즉 계속하여 함께 계심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늘 함께 계신다고 말씀한다(시편 139:7-10).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계신다는 점도 말씀한다(출애굽기 19:5, 6; 마태복음 28:20; 베드로전서 2:9; 계시록 21:3).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때 함께 있겠노라 약속하셨다. 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害)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편 23:4상반).

바울은 기록하기를,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무엇도, 즉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굶주림]이나 적신[=혈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로마서 8:35-39).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주(主)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히브리서 13:5하반, 6. 필요에 따라 문장부호 추가. 이하 같음).² 너무도 소중한 대상을 떠나보내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느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에 계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의지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애도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지만, 애도를 잘 마치고 어느 정도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고 말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애도 과정을 겪으며 ‘이제는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태도를 지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께 의지했다. 그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고린도 후서 1:8, 9 새번역).

바울이 겪는 문제들이 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소진되었을 때 그들 삶에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부족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주셨고, 바울은 나중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고린도 후서 12:10 새번역).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함을 느끼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자녀들의 현재 삶에 힘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데살로니가전서 5:17)을 실천해야 한다. 성경에서는 기도가 발휘하는 능력을 강조한다(마태복음 7:7, 8; 요한1서 5:14, 15; 시편 120:1). 또한 성경에서는, 힘든 상황에서 기도한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여준다.³ 소중한 대상을 떠나보냈다면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 하는 염려는 하지 말기 바란다. 그저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기도를 계속하라.⁵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빌립보서 4:7 새번역)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 구할 것을 …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빌립보서 4:6). 당신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난 후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안에 충실히 거할 것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계속해서 계속하는 것’, 즉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인내”, 즉 ‘견딤’이라고 부르며,⁶ 이는 그리스도인이 시련을 겪을 때 요구되는 덕목이다.⁷ 예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다(마태복음 24:13).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즉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다(비교: 디모데후서 4:7, 8). 야고보서 5:11에서는 욥을 “인내”의 좋은 보기로 제시한다. 욥은 어떤 모습으로 인내했을까? 그는 불평을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금욕주의자의 시선으로 관조하려 하지 않았다. 욥의 인내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참조: 욥기 1장, 2장). 그는 역경 속에서도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하나님을 섬겼다.

깊은 슬픔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싶은 유혹과 마주칠 수 있다. 필자의 좋은 친구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과 그의 아내는 거의 40년 전에 아들을 잃었다. 당시 그 아기는 첫돌에서 이틀이 지난 상태였다. 그 친구가 필자에게 털어놓은 말은, “아내는 하나님을 향해 위로를 구했고, 나는 그분에게서 돌아섰지” 하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순진무구한 아기가 죽는 비극을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라면 섬기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친구는 20년을 교회에서 떠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세상을 먼저 떠난 자기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지금 그는 주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충실히 섬긴다. 지금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했던 일을 후회하고 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친구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협한 상태에 빠뜨렸음을 인정한다. 그와 아울러 그 친구는, 자기가 낳은 또 다른 자녀들이 아직 어렸을 때 아빠인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을 유지했더라면 그 아이들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소개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대상을 잃을 때 자기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의 아내가 보였던 본모기를 따르라고 권한다.⁸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보내고 애도 과정을 밟을 때, 하나님을 꾸준히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모든 면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애쓰고 다른 성도들과 정기적으로 함께 예배하고자 노력한다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계속하는 가운데 당신은 슬픔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당신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결 론

죽음 및 상실과 마주할 때,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크게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간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을 꾸준히 섬기며 견디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하나님은 당신을 강하게 하고 도우면서 슬픔에서 회복되도록 하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이어서, 당신이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애도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꾸준히 섬긴다면 당신은 슬픔과 상실이라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해결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다.

글쓴이: 코이 로퍼

미 주

¹여기 정리한 내용과 인용 성구 등 많은 면에서 바탕을 둔 글: Jim Hughes, “Remember That You Are Not Alone in Your Grief.” 하나님의 임재 결과 주어지는 약속과 관련하여 짐 휴즈가 제시한 여섯 가지 요점: (1) God’s Protection of Us in Times of Temptation. (2) God’s Comfort to Us in Times of Trouble. (3) God’s Strength for Us in Times of Weakness. (4) God’s Blessing for Us in

All Circumstances. (5) God's Hope for Us in Times of Despair. (6) Our Ministry to Others in Times of Need. (Jim Hughes, *Good Grief and How to Experience It*, Class Notes, Ministries with Senior Adults,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9-13 January 2006, 24-27.)

²하나님의 백성이 힘든 시절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한 예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해주신 이야기를 보라(다니엘 3:16-30).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그 세 사람과 함께하셨듯,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³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마태복음 26:36-44; 마가복음 14:32-39),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할 때 기도했으며(사도행전 4:24-31; 12:12; 16:25), 스테반은 죽어가며 기도했다(사도행전 7:59, 60). 바울은 그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떠나가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했다(고린도 후서 12:7-10).

⁴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에 수록된 시들과 <욥기>를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불평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⁵리로이 브라운로우(Leroy Brownlow)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충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인쇄심을 갖고 견딜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신다.” (Leroy Brownlow, *Flowers That Never Fade* [Fort Worth, Tex.: Brownlow Publications, 1959], 20).

⁶참조: 베드로후서 1:6; 히브리서 10:36; 12:1; 디모데전서 6:11.

⁷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견뎌야 한다고 가르칠 뿐 아니라, 시련과 환란에 합당하게 반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인쇄라고 말씀한다. 참조: 로마서 5:3-5; 야고보서 1:2-4.

⁸코이 로퍼, ○○○와/과의 전화 인터뷰: 2006년 12월 23일.

Translated from Coy Roper, “Seeking Help from God”
in “The Christian and Grief” lessons.

THE ORIGINAL ENGLISH EDITION OF THIS STUDY APPEARED IN TRUTH FOR TODAY, PUBLISHED BY TRUTH FOR TODAY WORLD MISSION SCHOOL, INC., 2209 BENTON, SEARCY, AR 72143 USA. THIS UNOFFICIAL TRANSLATION IS DISTRIBUTED WITH THE PERMISSION OF TRUTH FOR TODAY WORLD MISSION SCHOOL.

© Copyright, 2011, 2020 by Truth for Today

긍정적인 삶의 첫 단계

긍정적인 삶을 가꾸기 위한 흥미진진한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학교에서는 과정마다 번호를 붙입니다. 기초과정에는 100번대 번호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과정 중에서 맨 처음 수강해야 하는 과목 이름에는 ‘원-오-원(One O One, 101)’이라는 번호를 붙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을 가꾸는 과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책 제 1장 내용이 바로 일종의 ‘원-오-원’ 과목이라 하겠습니다. 인생 과정 공부는 기초부터 시작하여 평생 계속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 번 진행되지만, 매우 자주 반복적으로 평생 공부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교수님이 신입생들에게 느닷없이, “인생은 경기이므로 여러분은 그 경기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학생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인생이 경기라고 하셨는데, 골대가 어디 있는지, 경기규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희가 어떻게 그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인생에 적용되는 규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긍정적인 삶을 가꿀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삶에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들을 정해놓으셨고, 매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목표는 (1) 풍성한 삶(요한복음 10:10)과 (2) 마지막에 가게 될 천국(요한복음 14:1-3; 베드로전서 1:2-5). 이러한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및 경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참조: 베드로후서 1:2-5).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태복음 4:4; 요한복음 8:32; 12:48).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의 환자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의 삶에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제가 느끼는 바보 같은 불안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가꾸는 일은 ‘목표’에 바탕을 둡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목표들을 아래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각각의 목표를 신중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되었음(계시록 4:11 흠정역).
2.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함(에베소서 3:21).
3. 우리의 매일 목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데 있음(베드로전서 1:16, 17).
4. 하나님은 영이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함(요한복음 4:24).
5. 우리는 “빛진 자”로서 빛을 갠고자 매일 노력해야 함(로마서 1:14-16).
6.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야 함(마태복음 6:33).
7.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함(갈라디아서 6:10).
8.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태도를 유지해야 함(빌립보서 2:5-8).
9.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므로 열매를 맺어야 함(요한복음 15:1-5; 갈라디아서 5:22, 23).
10.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 즉 관리인의 임무를 맡기셨음. 우리는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함(고린도전서 4:2, 3).
11.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함(데살로니가 후서 2:14; 에베소서 4:1, 2).
- 12.우리가 올바른 삶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이 바탕이 되어야 함(빌립보서 4:8).

위에 정리한 열두 가지는 우리 삶에 주어진 ‘주된’ 목적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된 목적들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목표들을 추가할 수 있고 추가해야 합니다. 위에 정리한 열두 가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출 때, 더 쉽고 더 즐겁게 긍정적인 삶을 가꾸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기 바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벤 로버트슨의 책 《붉은 언덕과 목화》에 나오는 인물과 같습니다. 로버트슨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1810년 출생. 1890년 사망. 50년을 살았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보낸 세월은 80년인데 5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잃어버린’ 30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

“청년의 삶, 중년의 삶, 노년의 삶,
그리고 과거가 되는 삶.
그러니 열심히 살자, 마지막 날까지,
‘잘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날까지.”

-에드워드 로랜드 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진정한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출생증명서를 잃어버린 한 어린아이가 울면서 “태어난 증거를 잃어버렸어요”라고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흥미진진한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긍정적인 삶’이라는 과정의 첫 번째 기초과목을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이라는 과정을 잘 마치고 학점을 따야 합니다.

추가 연구 및 토론 안내

관련된 성경 말씀

아래의 성경 구절들이 ‘긍정적인 삶의 첫 단계’라는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1. 요한복음 17:3; 14:6.
2. 요한복음 11:25; 20:31.
3. 요한1서 5:11-13, 20.

맞으면 T, 틀리면 F

1. T F: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가꾸는 방법에 관한 기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2. T F: 모든 사람이 삶의 목적을 알고 있다.
3. T F: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빈칸 채우기(한 칸에 단어 하나)

1. “인생 _____ 공부는 _____ 계속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 번 진행되지만, 매우 _____ 적으로 _____ 공부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2. “인생의 _____ 이/가 무엇이고 인생에 _____ 되는 _____ 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_____ 삶을 가꿀 수 _____”.
3. “_____께서는 우리 삶에서 _____ (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을 정해 놓으셨고, _____ 지키며 살아야 하는 _____ _____ 알려주셨습니다.”

생각하고 토론하기

1. 긍정적인 삶을 가꾸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는?
2. 사람들이 삶을 가꾼다고 하면서 택하는 그릇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살아있는 것과 정말로 살아가는 것 사이의 차이점은?
4. 이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은?

나의 질문 정리하기(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 1.
- 2.
- 3.

긍정적 행동의 증거

(안내)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아래의 일곱 가지 항목을 계속 채워 넣게 됩니다. 이는 긍정적인 삶을 가꾸는 데 꼭 필요한 활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별도의 노트에 다음 일곱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1. 이번 주에 나에게 가장 크게 힘이 된 생각
2. 나에게서 좋아진 점
3. 내가 특별히 감사드리는 일
4. 이번 주에 내가 누군가를 도운 방법
5. 내가 괜찮은 사람인 이유
6. 한 줄 기도
7.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 일

글쓴이: J. J. 터너
 Turner, J. J. *Building a Positive Life*. pp. 7-10.
 Translated with the permission of J. C. Choate Publications.

영적으로 온전한 태도

(연재 1/4)

가정 문제를 다루는 상담 분야에서 50년 넘게 활동하면서 널리 알려진 안젤로 패트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내가 다시 16살이 된다면, 견고한 성품을 쌓고자 있는 힘을 다할 것이다. 나는 옳고 그름 사이의 차이를 잘 아는 사람이 되려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영적 생활을 일구어야 할 필요성을 [어린 나이에]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개인적 신념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을 모두 찾아 나설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나는 내가 갖게 된 힘을, 그것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나 자신을 두 배로 복 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사람들은 윤리적 가치에 관해 많은 말을 한다. 하지만 윤리적인 말에 담긴 내용을 내면의 성품 속으로 옮기는 일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 알고 있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인생에 대해 충분히 안다는 확신이 서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규율을 가르치기 어렵듯, 자기 자신에게 규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예수님 일행과 관련하여 붙들고 따지던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고 나서 냉정한 판단을 내려 보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든다고 자부하던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기하여 공격한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로운 거인이라고 착각하는 영적 왜소증 환자들이 그 모든 공격을 만들어내었음이 분명해진다. ‘나는 이제 어른이 다 됐어’라고 굳게 믿는 청소년은 내면의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정도 배웠으면 됐지!’ 하고 굳게 믿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곳의 누군가에게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생각 자체를 불필요하게 여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마주친 유대인 사회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너무도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소경된 인도자”라고 부르기도 하셨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해하는 귀를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의 내면에 매우 특출한 성품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서 그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영예를 받아 마땅하다는 점은 다수의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의 세월 동안 행동을 통해 자서전을 기록하셨다. 완전한 사랑과 헌신을 지니신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이타적으로 섬겼기에, 그가 보여준 삶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사랑하고 싶고 신뢰하고 싶은 삶으로 남아 있다.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가 살아 낸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진심이었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였음을 보증한다. 그토록 잘 살아낸 삶에서 어느 한 측면이 잘못되었을 수는 없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았다.

그리스도와 같은 시대를 살며 그들 따르던 제자들은 매일 그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마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니고 계신, 신비스럽기까지 한 특성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1세기의 제자들이 체험한 것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없다. 책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직접 찾아가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차선책은, 더 풍부한 통찰력을 갖겠다는 소망을 품고, 더 경건한 자세로 복음서의 기록과 서신서의 내용을 살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있던 특출한 성품은 초기교회 제자들을 사로잡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가장 심각한 잘못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은 보기 좋게 포장한 것이 아니었기에 날카로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존경과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에, 틀린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가르침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그리스도께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리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답변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두 제자가 주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을 드러내자 나머지 열 제자가 듣고 화를 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문제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셨다. 그 말씀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너희는 그러한 종류의 정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아이는 내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제자들을 몹시 부끄럽게 만드는 가르침이었지만,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여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만두시게 하고 싶었던 베드로는 그러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게 하겠노라고 단언했다. 우리 눈에는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이 높이 평가할 만한 태도이고 따뜻한 충성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태도를 지옥의 정신과 관련지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였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며 이유를 설명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꾸짖음을 받아들였다. 베드로가 내면에 무언가 특별하고 위대한 성품을 갖추고 있어서 심한 말씀도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매우 특별한 무엇인가가 베드로를 붙들었고, 이전보다 더 가까이 오게까지 만들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했지만, 바로 그 밤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하리라는 예언을 들어야 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다. 베드로는 속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나는 이분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나보고 아직 돌이키지도 않았다고 하시니...’ 하는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로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어떤 것도 베드로의 감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몇 시간 후, 겐세마네 동산 저 멀리서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왔다. 베드로는 그 상황을 자기가 말한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그는 칼을 빼내어 쥘

은 사람의 머리를 노렸다. 하지만 그 사람의 귀만 땅에 떨어졌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칼을 겨누었다면 더 정확하게 사람을 공격했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행동을 중지시켰고, 칼을 거두게 하셨다. 멈추어 선 베드로는, 땅에 떨어진 귀를 그리스도께서 집어 원래의 위치에 놓으며 고쳐주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러한 일을 겪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그때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그 무엇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것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지니신 특별한 그 무엇을 보았고, 예수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 그러한 성품을 갖추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너무 없었다.

예수께서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던 ‘그 무엇’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헤아릴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예수님의 특별한 성품이 포함하는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단어를 우리말에서 찾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책에서 그것을 ‘영적 특성’이라 부르고 있다. 예수께서 지니신 영적 특성은 모든 나라를 향한 사랑과 모든 나라의 모든 이를 향한 사랑에 의해 조절되고 방향이 정해졌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 세상과 관련되어 있었다. 특정 인종이나 신조나 국가에 속하지 않은 마음이었다. 모든 인종과 국가, 각각의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는 마음이었다.

오늘날 복음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던 자리에 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눈먼 인간성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고 간절히 호소한다. 필자는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자매들이 4복음서를 충실히 부지런히 연구해 왔고, 말씀에 기록된 교리들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다. 또 우리는 그러한 교리들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태도를 키워 왔다. 그러한 태도를 지녔기에 종파나 시류가 요구하는 타협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내면에 크고 장엄하게 자리하고 있던 기본적 자질을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 보인다. 우리는 4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지도 위에 표시하는 일에만 집중한 것은 아닐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히 무어라 기록되어 있는지는 배웠지만 예수님 안에 자리한 영적 샘에서 나는 물을 깊숙이 들

이마시는 일은 소홀히 한 것이 아닐까? 그 샘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 앞에 지극히 충성스럽고, 인류에게 큰 도움을 끼치며, 구원받지 못한 인류를 연민의 눈으로 보게 만든 원천이었다.

그리스도의 꾸짖음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나 인간적인 견해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면 그러한 꾸짖음 때문에 제자들과의 사이가 멀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적 현신이 너무도 컸기에, 예수님의 꾸짖음은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되어 제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예수님의 영적 현신이 너무도 커서 제자들이 지닌 최고의 자질들보다 더 묵직했기에, 예수님의 꾸짖음은 공격성 없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전도자에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과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던 기본적 자질을 교환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가정해 보자. 진정한 전도자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후자 쪽을 택할 것이다.

글쓴이: E. W. 맥밀란

McMillan, E. W. *The Minister's Spiritual Life*. pp. 73-76.
Translated with permission.

폭발적으로 성장한 나라



아래의 비유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이 땅에 세워 왕으로 다스리려 하는 나라의 시작과 성장에 관해 말씀하셨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天國. 헬라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마 13:31-32. 문장 부호 첨가. 이하 같음).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께서는 아주 작은 겨자씨를 이용하여 실물교육을 하셨다. 그가 왕으로 다스리게 될 나라는 작은 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하겠지만 깜짝 놀랄 성장을 보임으로써 시작 당시와 비교하여 매우 크게 자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가르침이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놀라움을 안기며 성취되었다.

이 땅에 신성한 왕의 나라를 세우신 분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운동이 맨 처음 출발 때부터 실패할 것이 뻔해 보였을 것이다.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나라의 기초를 놓는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제국을 세

우는 지도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자질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왕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크게 달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성한 뜻에 따라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히브리어: 메시아/마시아흐. 요 1:41]에 관해 예언하면서, 성장 이전의 모습이 “**연한 순(筍)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라고 묘사했다(사 53:2). “**연한 [새]순**”이 “**마른 땅**”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으셨을 뿐 아니라, 이 지구를 그 중심까지 뒤흔드셨다.

나라를 세우려는 그리스도 앞에 층층이 쌓여 있던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살펴보자.

첫째,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던 모습과 달리 예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기원후 1세기 당시 많은 유대인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은 기세등등한 말을 탄 용맹한 정복자였다. 메시아는 이교도로 마인들을 맹렬히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인물이어야 했다. (로마를 정치적으로 무너뜨리고 해방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쓰는 종파로 열심당이 있었다.)

유대인들이 구원자에 대해 갖고 있던 유치한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갈 4:4). 시인 조지 맥도날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한다.

그들 모두가 기다린 왕은
적들을 죽이고 그들을 높일 사람.
작은 어린 아기로 오신 주님은
한 여인이 산고 끝에 낳은 사람.

둘째,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던 맨 처음부터, 악한 자들이 주님을 죽이고자 했다. 마태가 복음서에 쓴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을 알아내어 해치기 위해 헤롯대왕이 얼마나 집요하게 캐물었는지 잘 드러난다(마 2:3).

결국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의 사내아이를 모두 죽임으로써 구주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랐다(마 2:16).

셋째, 예수께서는 멸시받는 지역인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나사렛에서 컸

다는 것은 평판을 높이기엔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참조: 마 2:23; 요 1:46; 7:52).

넷째, 주 예수께서는 공식적인 랍비 훈련을 전혀 받지 않으셨다. 이와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도 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요 7:15). 예수께서 갖고 있던 지식에 대해 유대인 지도자들이 것처럼 놀란 이유는 그가 유명한 랍비의 문하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다섯째,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지니고 있던 재력은 나라를 세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데(고후 8:9), 예수님의 가난함을 설명하며 사용한 헬리어 단어는 ‘거지의 삶을 살 정도로 빈곤하게 살다’라는 의미이다(Vine의 책 192 쪽). 그리스도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다(눅 9:58).

여섯째, 예수께서는 어떠한 정치 기구도 소유하지 않으셨음이 분명하며, 예수님은 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할 만한 세속적 명성도 누리지 못하셨다. 교회 설립 초기 세상 역사에서는 예수를 거의 완전히 무시했다. 예수 자신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에 관해 말씀하실 때 혈족조차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상 깊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참조: 요 7:5).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끔찍한 실패를 겪을 것이 예견되는 조건들을 모두 안고 있는 것 같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앞서 살펴본 모든 약조건에 예수 자신이 삶의 정점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운동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의아해질 수 있다. 그 운동이 인상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는 커녕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 그리스도교가 있다. 문명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 땅에서 왕의 사신으로 일하는 사람들

주 예수의 사도들은, 그들이 지닌 자질만 놓고 본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사실 사도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사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은 비천한 어부였을 뿐이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옛날부터 이어진 낮은 신분에 속한 채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사람들이었다. 사도들과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사도들은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이었다(행 4:13 새번역). 이 표현에 담긴 분명한 뜻은, 사도들이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으므로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적 기능도 갖추지 못했다는(즉 비전문가들이라는) 의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의 무리 안에는 ‘폭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신성(神性)을 지닌 주 예수께서 이끄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사도들 사이에 잠재했던 위험들이 초기단계의 교회 운동을 파괴했을 것이다.

사도의 무리 속에 도사리고 있던 ‘폭발 위험’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면, 사도들 가운데 마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세리(稅吏), 즉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 세금을 걷는 유대인이었다(참조: 마 9:9). 세금 징수관 마태는 동족의 미움을 받는 부류에 속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나를 따르라**”며 그를 부르셨다.

사도의 무리에는 마태와 함께 “**셀롯이라는 시몬**”, 즉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다(눅 6:15; 행 1:13). 시몬은 ‘열심당’이라는 분파의 일원이었다. 열심당원은 증오로 가득찬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로마인을 증오했고, 유대인인 면서 스스로를 팔아넘기고 로마인에게 협조하는 사람을 특히 증오했다.

만약 마태가 사도의 무리에 함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열심당원 시몬은 마태를 즉시 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세리와 열심당원이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셨다!

여러 면에서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모인 사도의 무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고대 사회에서 출범시킬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사도들이 큰 재산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었다(참조: 막 1:18; 눅 5:28). 복음을 전파하며 다니는 동안 사도들에게 지급된 것은 매우 미약했다(마 10:9, 10).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며 베드로가 먼저 꺼낸 말, 즉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한 말은 사실 그대로였다(행 3:6).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된 사건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분명히 성장했다. ‘성장하다’라는 단어로는 의미가 너무 약하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신성한 나라가 전에 볼 수 없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점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분명하게 예언한 일이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의 예로 이사야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선언하기를, “말일(末日)”, 즉 그리스도 시대에 “여호와와의 전(殿)”이 설립될 때 “만방(萬邦)”, 즉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했다(사 2:2).

복음이 전파되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했다(사 11:9). 이사야가 예언한 모습은 이른바 천년왕국, 즉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예언이 아니다. 바울이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11장의 예언은, 이방인들(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 오는 것에 관한 말씀이다(참조: 겔 47:1이하).

구약성경의 예언 내용을 볼 때, 초기교회의 빠른 성장은 예견된 일이었다.

왕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폭발적 성장

기원후 1세기에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한 기록을 연구하노라면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 폭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래에 정리한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처음 찾아온 오순절에 3천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안내를 받았고(행 2:41), 계속해서,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이 그 수에 더해졌다(행 2:47)

얼마 되지 않아,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을 듣고 믿은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행 4:4). 사도행전 5장의 기록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고 했다(행 5:14).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후 오래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박해가 가해졌지만 믿는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했고,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으며, 많은 사람이 복음에 담긴 가르침을 주의깊게 배우고 따랐다(행 8:4, 5).

사도행전 8장에서는 구원의 말씀이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티오피아)로 급히 전해진다.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던 내시의 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였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개종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이미 수리아(시리아)의 다메섹(다마스쿠스)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참조: 행 9:10).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는, 이 당시에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담겨 있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모습은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된다. 그리고 11장 뒷부분에는, 베니게(페니키아), 구브로(키프로스), 수리아 안디옥(안티오키아)까지 말씀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2장 24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하여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해외 전도를 위해 애쓰는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들고 구브로(키프로스)로 간 다음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 결과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되었다(참조: 행 14:21).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정 때(행 15:40 이하) 다시 한 번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동행인은 실라(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디모데와 누가)였는데, 바울 일행의 전도와 관련하여 소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된 상황은,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행 16:5).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유럽으로 확대되고 그리스도교는 걸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오른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안내를 받아 진리를 받아들였고(참조: 행 17:4), 얼마 지나지 않아 적대자들이 제자들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행 17:6. 흠정역: 세상을 뒤집어엎은 이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정도가 되었다.

제자들은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바울이 인용한 다음과 같은 말씀 그대로였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롬 10:18 공동개정).

하나님의 뜻에서 찾는 폭발적 성장의 이유

초기 그리스도교가 놀라운 속도로 확장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초기교회의 성장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으로 보려는 시도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보인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나라라는 사실에 기초할 때에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원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

수많은 사람이 의심 없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이킨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은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가슴 벅찬 메시지임이 분명하다. 그러한 좋은 소식을 담고 있기에 복음은 수많은 사람의 정직한 마음속에 기쁘게 자리를 잡아 왔다.

기적을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

예수의 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교는 첫걸음도 내딛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지 아닌지에 따라 굳게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나 선포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고전 15:14이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 부활을 통하여 그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롬 1:4). 옥스퍼드 대학교 현대사 교수를 역임한 토마스 아놀드(1795-1842)는 주 예수의 부활이 지니는 특징을 가리켜 “인

류 역사에서 가장 잘 입증된 사실”이라고 한 바 있다.

편집자註

21세기에는 1세기 때와 달리 기적을 통하여 복음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니 빠른 교회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있다. 물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던 초기교회와 같은 폭발적 성장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입증하신 메시지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모든 ‘증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데 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증거들과 관련하여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32).

선한 행동이 뒤따랐기 때문

그리스도의 크신 뜻을 따르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초기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담긴 구제가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초기교회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았다(참조: 행 2:44, 45; 11:29).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것이라고 하셨다(요 13:35). 그렇게 사랑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사랑을 실천하게 만든다.

교리 면에서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

교리 면에서의 일치는 초기교회가 지니고 있던 매력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주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진리 안에서 일치된 교리를 유지할 때 거두게 될 효과는 예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기도에 잘 드러난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이 땅에 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시기는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생활한 시기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행 4:32).

사도들의 바른 교훈, 즉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일(롬 16:17)은 주

예수의 크신 뜻을 실천하고 전하는 데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되어 왔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리에 환호하고 광고하며 지지하는 자들은 1세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깨끗했기 때문

1세기 당시 주 예수의 교회가 지니고 있던 도덕적 정결함은 매우 독특한 특징이었다. 고대의 이교도들이 지니고 있던 추잡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교도들의 음탕함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개종하여 구주의 백성이 누리는 깨끗한 영적 환경 속으로 들어와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박해 앞에서 평안을 유지했기 때문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평온함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의아하게 여겼을 것이 분명하다.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박해를 감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원수를 위해 복을 빌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러한 의문점은,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을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마무리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대단치 않아 보이는 모습으로 시작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나라는, 매우 크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세상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성장했다. 우리들 각자도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속해서 힘차게 성장하는 모습을 목격하도록 하자.

참고 문헌

- Arnold, Thomas. 1939. *The International Standard Encyclopedia*. Vol. 4. James Orr, ed. Grand Rapids, MI: Eerdmans.
- Vine, W. E. 1952.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 Vol. 3. Grand Rapids, MI: Zondervan.

글쓴이: 웨인 잭슨

Jackson, Wayne. "The Explosive Growth of the Kingdom of Christ." *ChristianCourier.com*. Access date: December 15, 2020. <https://www.christiancourier.com/articles/1583-the-explosive-growth-of-the-king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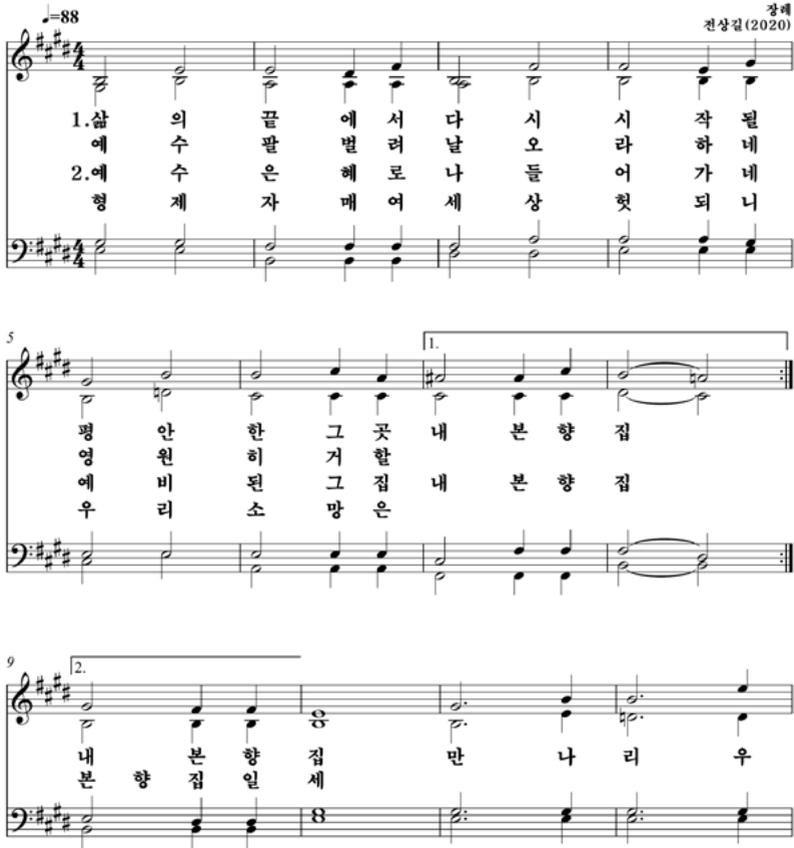
《그리스도의 교회》 제46권에서는 죽음의 문제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위로와 소망을 다루었습니다. 이 주제에 꼭 맞는 곡을 작곡하여 주신 전상길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령한 노래들> 홈페이지: spiritualsongs.kr

내 본향 집

My Heavenly Home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 히브리서 16:16

♩=88 장래
전상길 (2020)



1. 삼의 끝 에 서 다 시 시 작 될
에 수 수 팔 별 러 날 오 라 하 네
형 제 은 자 매 어 세 상 어 렷 가 네

2. 평 안 한 그 곳 내 본 향 집
영 원 비 된 그 집 내 본 향 집
우 리 소 망 은 내 본 향 집
세 만 나 리 우

13

리 만나 리 주 에 비 한 나 라

17

천 국 영 광 의 노

21

래 부 르 며 영 원 히 함 께 살 겠 네

“BE HOLY FOR JOY AND PEACE.”

‘거룩한 삶에 깃드는 기쁨과 평강’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랍니다.

